

# ‘91살’ CJ대한통운, 2.5조 투입... 글로벌 기업 탈바꿈

〈2023년까지〉

2023년까지 대규모 투자 결정  
전문인력 800명 영입 계획  
‘융합형 풀필먼트 인프라’ 확대



CJ대한통운 강신호 대표(왼쪽 두번째)와 주요 경영진들이 경기도 동탄에 위치한 TES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로봇이 상품을 집어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거나 상자에 넣어주는 ‘피싱 시스템’ 시연을 보고 있다. /CJ대한통운

15일로 91살이 되는 CJ대한통운이 2023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추가 성장을 모색한다. 이커머스·택배 플랫폼 확장을 위한 로봇·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의 첨단기술 확보, 업계 최고 인재 영입, 획기적인 조직 문화 개선 등을 통해 ‘혁신기술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다.

여기엔 2023년까지 융합형 풀필먼트 인프라를 현재보다 8배로 확장하고, 최고급 전문인력 800명 추가 확보 등의 내용도 담겼다.

CJ대한통운은 14일 이같은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강신호 대표는 창립 91주년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

의 역사와 함께해 온 CJ대한통운은 이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없어서 안 될 사회기반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이제는 첨단 물류기술을 기반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기술기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대체불가능한

최고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다는 미션도 새로 내놨다.

강 대표는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넓은 부지와 큰 창고, 경험 기반의 운영 능력은 당분간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미래

엔 생존조차 보장받기 힘든 방식”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물류산업은 노동집약, 경험집약 구조에서 디지털집약 구조로 급변하고 있다. 미래성장을 위한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트렌드를 읽고 변화를 선도하는 최고인재를 통해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미래 신성장동력인 이커머스, 택배, 새로운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플랫폼 사업을 집중 육성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기 근지암, 용인, 군포 풀필먼트 센터 외에도 수도권에 이커머스 핵심거점 및 3온도 풀필먼트 센터를 추가 구축한다.

지금보다 8배 수준으로 확장하는 융합형 풀필먼트 인프라에는 자율주행 로봇 등을 통한 자동화와 AI·빅데이터 기반의 예측운영 역량이 더해져 미래물류가 이

끌어갈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된다.

택배사업은 소형상품 분류설비인 멀티포인트(MP) 등을 통해 취급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커머스 플랫폼과 셀러, 소비자들에게 한차원 높은 융합형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 대표는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및 이커머스 물류와 부가서비스를 국내외에 통합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내후년까지 TES물류기술연구소 규모를 2배 이상 키우기로 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로봇 기반 현장 자동화, AI·빅데이터 기반 운영 최적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 시스템 등 12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기술 확보에서 상용화까지 세부일정을 담은 마스터 플랜을 세운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우수 혁신 선도’ 올해의 중진공인 선정

중진공, 중진공인 선발 경진대회  
민관 中수 수출활로개척, 최우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진행한 ‘중진공인 선발 경진대회’에서 온라인 수출처 김형운 과장의 ‘민관합동 중소기업 수출활로 개척’이 최우수에 뽑혔다.

중진공은 ‘중진공인 선발 경진대회’를 열고 혁신을 선도한 올해의 중진공인 3인을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진공은 올해 기관 혁신과 변화·발전 및 ESG경영을 위해 ▲디지털그린 혁신선도 ▲사회적책임 ▲지역발전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공모했다.

본사와 현장부서에서 발굴한 총 89개 사례를 대상으로 내외부 평가를 거쳐 9개 사례를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지난 9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경진대회를 진행했다.

최종평가에선 전 직원 온라인 사전평가와 KOSME 심사단 평가(내외부 평가위원 30명), 일반시민과 중소기업인으로 구성된 국민 참여단 모바일 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우수, 우수, 장려를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위기를 신속히 타개하기 위해 애로를 상시 수렴하고, 유관기관·민간과 적극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한 것이 높은 성과로 인정받았다.

우수상은 위드 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정책자금 비대면·디지털화를 통한 정책금융 서비스 혁신’(기업 금융처 석운기 과장), 장려상에는 ‘경남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지원 플랫폼 구축’(경남지역본부 노태경 과장)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중진공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한 우수 혁신 사례들을 내년도 사업에 적극 적용하고 현장의 니즈를 담아낸 지원 사업 혁신을 통해 고객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 중기중앙회, 경주서 中수 생존전략 모색

내일부터 3박4일간

중소기업계 대표들이 경북 경주에 모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생존 전략 모색에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간 경주 힐튼호텔에서 전국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대표 250여명이 참가하는 ‘202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리더스포럼 주제는 ‘브이노믹스 시대의 중소기업’으로 코로나19가 바뀌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중소기업의 생존과 미래 비전을 찾아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위드코로나’ 이후 경제단체 중 최초로 열리는 자리인 만큼 포럼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전원 백신접종 완료자 구성 ▲방역체계 구축 ▲참가규모 최소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등 모범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총 나흘간의 일정 중에선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초강연 ▲송영길·이준석 여야 대표의 각 당 중소기업 정책방향 강연 및 대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한·중 경제무역 협력’ 강의를 비롯해 대한민국 첫 특별귀화자인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소장,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홍신 소설가, 김정우 조달청장의 특별강연까지 우리사회 영향력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강연이 준비돼 있다.

이외에도 이혜정 요리연구가의 ‘코로나를 이기는 요리 강연’, 홍익희 교수의 ‘브이노믹스 시대, 돈의 인문학’, 이호선 교수의 ‘부부행복의 비결’, 이경희 연구소장의 ‘코로나를 이기는 건강 다이어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김승호 기자

## 이천 ‘시몬스 테라스’에 초대형 트리 설치

지역사회 발전 위한 문화나눔 행사

경기 이천에 있는 ‘시몬스 테라스’가 겨울을 앞두고 화려하게 단장했다.

시몬스는 시몬스 테라스(SIMMONS Terrace)에 초대형 트리과 일루미네이션 점등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완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몬스 테라스의 크리스마스 트리과 일루미네이션 점등은 시몬스 창립자 지난 2018년부터 이천의 시민이자 이웃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이어오는 대표적인 문화 나눔 행사다.

매년 연말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하는

웅장한 트리와 밤하늘을 수놓은 반짝이는 조명으로 이천 주민들은 물론 시몬스 테라스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하며 이천의 랜드마크가 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지친 방문객들에게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대를 맞아 삶의 휴식과 일상 회복에 대한 희망을 전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해보다 더 많은 조명과 장식을 설치, 기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화려함과 풍성함을 더했다.

시몬스 테라스 야외 잔디 정원에는 수천 개의 레드·골드·실버 컬러 장식과 금



경기 이천에 있는 시몬스 테라스 전경.

빛 전구로 꾸며진 최대 높이 8m의 대형 트리들이 로맨틱한 감성의 홀리데이 무드를 조성했다. 여기에 잔디정원 한 칸에 자리잡은 산타클로스 표지판, 스노우볼 형태의 가로등, 포토월 벤치 등과 잔디정원 울타리를 감싸는 은하수 조명으로 연말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김승호 기자

## KCC글라스 ‘홈씨씨 겨울 인테리어 대전’

매장 방문 고객 최대 30% 할인 혜택

KCC글라스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가 인천점과 울산점에서 이달 13일부터 28일까지 ‘홈씨씨 겨울 준비 인테리어 대전’을 진행한다.

14일 KCC글라스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 홈씨씨는 인천점과 울산점 매장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방문 고객은 욕실자재, 창호, 중문,

마루, 부엌용품, 가구 등 총 1600여개의 인테리어 자재와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홈씨씨의 프리미엄 창호인 ‘홈씨씨 윈도우’를 비롯해 중문 전 품목에 10%의 할인이 적용되며 창호와 중문을 함께 구입할 경우엔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욕실자재 세트 구매 시에는 홈씨씨 매장 전용 상품 교환권 5만원을 준다.

주요 입점 업체별도 할인 및 상품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검찰, 김만배 구속 후 세번째 소환...  
박상도도 소환 임박 /사진 뉴스스  
▲ 확진·격리 수험생도 수능 응시...  
감독관 레벨D 방호복

▲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권오수 구속  
기로...김건희도 겨냥  
▲ 18일 수능→22일 전면등교...  
방역 긴장감 고조



▲ 건강보험 고갈 시계 짹짹...3년  
뒤 ‘적립금 체로’  
▲ 코로나19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80%  
는 ‘백신 괴담’ /사진 뉴스스